

근대성을 손전등 삼아 둘러본 교토문학과 기행

김윤식의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

교토에서 수학한 바 있는 이양하·정지용·운동주의 문학적 발자취를 둘러보는 일은 당대의 시각으로 그들의 문학을 이해하는 일이다. 문학평론가이자 문학사가인 김윤식 교수는 교토문학파의 흔적을 탐색함과 동시에 문학사에 남긴 그 흔적의 의미를 밝혀낸다.

필경 문학기행이란 문학사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되짚어나가는 일, 문학사가 채 수용하지 못한 사실들을 보완하는 일, 더 나아가 문학사를 시간의 사슬에서 구원하는 일이다. 어느 작가의 하숙집이나 시를 읊었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문학사에 '유폐'돼 생명력을 잃었던 작가와 작품을 우리 눈앞에 되살려 내는 일이다. 한낱 여행기에 그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문학사와의 영원한 대화를 보여주는 명편들이 간혹 등장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문학평론가이자 문학사가인 김윤식 교수(65·서울대 국문학과)의 문학기행이 그런 범주에 들 것이다. 이미 《환각을 찾아서》《낮선 신을 찾아서》《지상의 빵과 천상의 빵》《설렘과 황홀의 순간들》 등 많은 문학·예술기행서를 남긴 바 있는 김교수가 이번에는 일본 교토(京都)를 네차례 돌아보고 난 소회를 담은 문학기행서 《청춘의 감각, 조국의 사상》(솔)을 펴냈다.

‘교토문학파’의 지리적·사상적 근거 탐색

교토 도시샤(同志社)대학을 졸업한 시인 정지용의 시 〈해협〉 중 ‘나의 청춘은 나의 조국!/다음날 항구의 개인 날세여!’에서 따온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 문학기행은 교토에서 공부한 우리 문학인들의 자취를 뒤쫓는 동시에 그 자취를 문학사적 의미로 변환한다. 김교수 자신이 명명한 ‘교토문학파’가 존재한다면, 그 문학의 지리적·사상적 근거를 탐색한 셈이다. 책제목에 따

르자면, 그 지리적·사상적 위치는 ‘조국’을 ‘청춘’으로 치환하는 식민지 청년의 마음자리가 된다.

이 마음자리를 엿볼 수 있는 일화는 세가지다. 첫번째 1940년 연희전문교수로, 젊은 시절 유학했던 교토를 다시 들른 수필가 이양하가 어떤 경인형(京人形) 가게의 쇼윈도에서 한 쌍의 인형을 본다. 이양하는 그 인형의 연두빛에서 신라 천년의 미를 발견한다. 두번째 도시사대학의 선배 정지용은 입학한 지 얼마되지 않은 후배 김환태를 데리고 “어떤 칠후과 같이 깜깜한 그믐날 쇼코쿠지(相國寺) 뒤쪽 묘지로 데리고 가서 〈항수〉를 읊어주었다.”

마지막으로 운동주가 남긴 자선시집 3부 중 후배 정병욱의 것만 남아 1948년 정음사에서 출간됐을 때, 도시사대학 선배인 정지용은 “청년 운동주는 의지가 약하였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정시에 우수한 것이겠고, 그러나 뼈가 강하였던 것이리라. 그렇기에 일적(日賊)에게 살을 내던지고 뼈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머리말을 남겼다.

김교수는 도시사대학에 들러 정지용·운동주의 성적표를 복사하고 쇼코쿠지 뒤로 돌아가 시를 읊는 정지용의 모습을 그려보기도 한다. 또 염상섭·운동주의 하숙집도 확인한다. 이런 그의 행동은 물론 성실한 문학사가로서 자료수집의 측면이 강하지만, 동시에 1930~40년대 교토

의 정서를 복원해 그 시대의 눈으로 문학가들을 바라보려는 열망에서 비롯한 면도 있다. 요컨대 당신 자신의 판단보다는 당신이 연구하는 시대의 판단을 따르라던 허버트 버터필드의 충고를 떠올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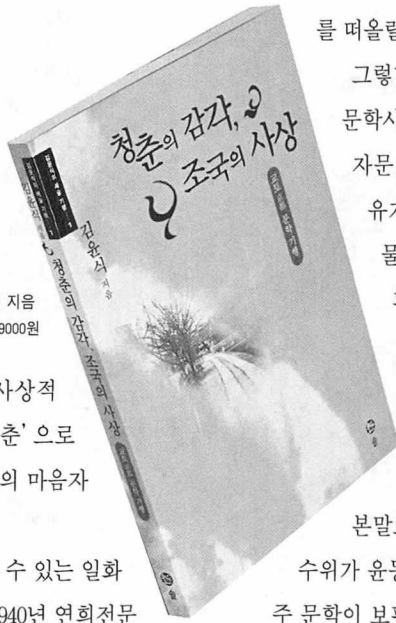
그렇다면 그 시대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문학사에서 교토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 앞에서 김교수는 교토대 법학부 유가와(瀧川) 교수 사건, 교토대의 명물 니시다 교수 등을 거론하며 교토파의 미학적·학문적·사상적 저항기질로 곤장 들어간다. 교토파의 저항기질이 운동주의 옥사와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면, 도시사대학 수위 앞에 서서 서투른 일본말로 “한국서 온...”이라고 운을 떼면 수위가 운동주 시비 앞으로 안내한다면 운동주 문학이 보편성을 획득했다는 얘기가. 교토의 지적 풍토 속으로 들어간 김교수가 맞닥뜨린 것은 이런 근대성이다. 그 자리에서 김교수는 교토대 철학과 니시다(西田)교수를 만난다.

당대의 눈으로 근대문학 읽기

그렇다면 선(禪)의 자리에서 술어적 사고를 제시하는 니시다 철학과 우리 식민지 문인 정지용·이양하·운동주는 어떤 관계일까? 김교수는 니시다 철학을 통해 “정지용·운동주 쪽으로 헤겔을 끌어들이어서, 이른바 정지용 밑에 헤겔을 종속시키고자 했다”고 밝힌다. 그에 따르면 정지용은 ‘청춘=조국’에, 운동주는 ‘백골=조국’의 공식에 바탕했다. 그런 그들 밑에 ‘헤겔 종속시키기’는 곧 그들이 발견한 두가지 미의 형태를 근대성이란 헤겔의 손전등으로 비춰보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근대문학을 평생 공부한 노학자는 “우리 근대 문학사가 이 점에서 매우 엉성하고 거칠었다”고 자책한다. 거대한 복합 건물로 솟아오른 교토역에서 김교수가 금단추 여섯 개의 정지용을 만나 대화하는 환각을 보는 까닭도 이런 자책에서 비롯된 일일지 모른다.

— 김연수 기자



김윤식 지음
솔/A5신/278면/9000원